

東三省總司令部訪問 張學良氏會見記(二)

新進外交家陶尙銘氏와其他人物

◇奉天에서

李灌鎔

陶氏의 紹介로 名銜을 交換하며 『奉天省 長公署談議, 東三省 交涉 總署 問題 丁鑑修』라고 印刷된 것이다. 이 사람도 亦是 早稱田 出身이요 마춤 그의 留學하던 때와 가틈으로 우리는 그 當時의 學窓生活에 對하여 재미있게 談話하였다. 우리 朝鮮에 關係있는 『輯安縣事件』 까닭에 平安南北道에 몰아단 니며 宿食에 甚히 困難히 지냈다는 經驗談을 하고 우리는 만히 우셨다. 말이 弱少民族 運動에 맞쳐서 내가 『이번에 內蒙 獨立 問題가 잇서서 그 青年黨 首 郭道甫氏와 서로 交涉한다니 奉天當局에서는 엇지 생각하십니까?』하고 무르매 『蒙古는 獨立못합니다. 交通이 그다지 不便한 地方으로는 中國에 아 니면 露國에 벗어나야 사러갑니다. 爲先 經濟的으로도 대단히 貧弱하여 自立할 힘이 업습니다. 그 까닭에 蒙古가 中國으로부터 獨立한다함은 畢竟 露國의 한 地方이 되고 말 것입니다』하였다. 『何如間 中國 側에서 蒙古에 自治權은 주려함인가』하고 무른 즉 『네, 自治에는 反對 업겠지요』하였다.

이새에 健壯히 생긴 體格도 좃커니와 血色도 붉으레한 青年이 드러왔다. 亦是 陶氏의 紹介로 名啣을 交換한 즉 『東三省 保安 總司令顧問 俄我誠也』라 하는 日本軍人이다. 『아— 이 사람이 張作霖 大元帥와 함께 京奉線에서 遭難한 사람이고나!』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光景을 무러보려 하였더니 이 야기하기 시려하는 氣色을 보고 나는 말을 돌이어 朝鮮에 왔섯느냐고 무렀다. 말이 朝鮮의 金剛山에까지 맞친 後 나는다시 그 遭難의 光景을 무렀다. 새벽 다섯 시 가량하여 汽車가 漸漸 奉天에 갓가히 올 때임으로 下車할 準備를 하고 잇슬 때에 벼란간 爆發聲이 이러나는 同時에 汽車 天井 左右 車體가 散散조각으로 나며 발서 乘客들은 두 팔로 頭部만 싸고 꾸부려 버렸스 나 얼마 안되어 잠잠하기로 본 즉 輕重傷한 사람이 즐비하였다한다. 『나는

몸과 얼굴 몇 군데만 輕傷하였는데 지금도 傷處의 자취가 만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吳俊陞은 卽席에서 死亡하였고 張作霖은 鼻部가 조금 닳친 것 밖에는 다른 데는 傷한 곳이 없었습니다. 氏가 傷하여 죽은 것은 아닙니다. 爆發에 놀라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自動車에 태가지고 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잘 安定시켰었다면 그다지 速히 죽지는 안었을 것입니다』할 때 나는 『어느 때 죽었습니까?』한 즉 『그 날 午前 十一時 頃에...』 『그래, 누가 죽었습니다?』하였더니 그가 대답하기 前에 陶氏가 일러 『오르지요, 只今까지』하였다. 이새에 다섯 사람이 다 말이 엇시 잠잠히 잇다가 陶氏가 沈黙을 깨트리고 말하기를 『如何間 어느 個人의 所爲로는 너므도 複雜한 計劃的이었지요』한다. 나는 여기서 더듬고 십지 안었다. 如何間 張作霖의 幕所나 가볼가 하였더니 아직은 幕所가 업고 張氏 私邸 後庭에 藏置하여서 訪問할 수 업다함으로 그만 두었다.

이러케 잇는 동안에 그럭저럭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 말서 正午가 되었다. 그러나 張總司令은 인제야 이러나서 朝飯床을 對하였다는 消息이 겨우왔다.

이새에 또 靑年 한 분이 들어오는데 名銜을 본 즉 東三省 保安 總司令部 秘書 王家楨氏는 말하되 『郭氏는 여기서 곳 만날 수 잇지만 □氏는 絶對로 사람을 만나지 안습니다. 新聞記者뿐 아니라 도모지 밧갓 사람이라고는 만나지 안습니다. 只今 現職이 軍團長이지만 總司令部에도 오지안습니다. 아마 어려울걸요』하였다.